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닭 경제능력검정소 준공

- 11월15일 안성현지에서 준공식가져 -



△ 준공기념 테이프 절단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준공식이 지난 11월 15일(목)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검정소 신축현장에서 농수산부 관계관, 본회임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회장인사, 축사, 준공 테이프 절단 및 현장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난 1966년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에 처음 검정소를 개설한 이래 김포검정소를 거쳐 이번 새로 준공된 본 검정소는 정부의 축산진흥기금 보조와 자체자금으로 현재의 부지를 매입, 83년 10월19일 기공식을 가졌고, 1년 1개월만에 검

정제사 7동, 사무실·부화실, 제분창고, 관리인숙소 등 10동 연1천여평의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현대적 시설의 건물을 완공케 되었다. (시설내용 본지 P 99 참조) 특히 양계인 및 관련업계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은행나무 외13종 1천여주의 나무로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양계인의 닭 능력검정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검정사업은 명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검정소 건립에 공이 큰 삼대건설(주) 오정기소장, 동신중공업(주) (대표 백유현), 중앙국토개발공사 최상인, 동아건축설계사무소 박석규씨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본회 이규성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본회 검정소준공식에 기증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검정소 준공식 기증품 접수내용

| 기증하신분 | | 품명 |
|-------|---------|---------------|
| 소 | 속 | |
| 한국 | 가금학회 | 오봉국 화분 |
| 기 | 룡농원 | 이형성 " |
| 홍 | 성사로 | 정태원 화분, 사무실집기 |
| 대한 | 양돈협회 | 전동용 화분 |
| 국 | 립종축원 | 정순규 " |
| 평 | 택군청축산계장 | 오영근 " |
| 안성 | 농업전문대학장 | 김동우 " |

| | | |
|---------------------|-----|-----------|
| 세 립 건 설 | 문재학 | 벽시계 |
| 미국대우협회한국대표 | 이경원 | 탁상용시계 |
| 중 앙 케 미 칼 | 김무진 | 벽시계 |
| 한 국 사 료 협 회 | 정태원 | " |
|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 황영구 | " |
| 경 기 도 수 의 사 회 | 김지인 | " |
|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 유운수 | " |
| 대 한 특 수 기 계 | 고증현 | 혹판 |
| 동 아 전 축 | 이종성 | 대형거울 |
| 친 호 부 화 장 | 이계욱 | 기념타올 |
| 중 앙 가 축 전 염 병 연 구 소 | 윤지병 | 사무실집기 |
| 서 울 사 료 | 이규상 | " |
| 한 일 농 원 | 차두홍 | " |
| 신 기 농 장 | 이상운 | " |
| 고 창 양 계 | 신홍중 | " |
| 한 협 축 산 | 박준영 | " |
| 유 성 농 장 | 류종래 | " |
| 유 일 농 원 | 이규상 | " |
| 현 대 약 품 | 진수창 | 소독판, 소독약 |
| 대 성 미 생 물 | 이동규 | 사무실집기 |
| 덕 수 가 축 | 박길수 | " |
| 녹 십 자 수 의 약 품 | 장인상 | " |
| 동 진 회 | 고태영 | " |
| 과 학 사 료 공 사 | 신정재 | " |
| 우 성 실 업 | 전남수 | " |
| 제 일 화 학 | 서정범 | " |
| 양계협회부산·경남지부 | 김중경 | " |
| 동 신 중 공 업 | 백유현 | " |
| 삼 대 전 설 안 성 소 장 | 오정기 | 준공기념비의 수종 |

※ 사무실집기는 캐비닛, 책상, 의자, 서류상자, 월간일정표

가금부화업 중소기업 지정 신청

본회는 농수산부에 가금부화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상공부와 협조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12월 3일 상공부 중소기업국 진홍과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

였다.

상공부는 각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모의 경제성, 기술 혁신의 촉진, 경쟁 촉진기여도, 수출 기여도, 사회안정성 측면에서 검토지정하게 된다.

달걀에 항생물질 잔류 안돼

- 경향신문 해명기사 게재 -

11월 6일자 경향신문 사회면기사 '계란에 항생물질잔류' 게재에 대해 본회와 생산자대표가 항의한 결과 경향신문사에서는 11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은 해명 기사를 실었다.

달걀에 항생제잔류 조사결과 안나타나

보사부는 11월 14일 계란에 항생제성분이 잔류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부배합사료에 들어가는 항생물질의 양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계란에는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사부와 농수산부 관계자는 『일부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나이아신」 「환토티베이트」 「아연바시트라신」 등이 항생물질이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료 t당 10~50g 미만으로 함유돼 있기 때문에 계란에는 항생제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육계의 경우도 국제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11/16자 경향신문)

11월 육계분과위원회개최

지난 11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양계산물시세는 정보교환이 잘되는 관계로 별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닭고기는 kg당 900~950원대이며 초생추가 가격은 250~300원선이나 일부지역에서는 340원까지 거래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하 및 소비동향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소비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으며, 입추는 11월 중순까지 활발하였으나 초생추가 가격의 폭등과 소비의 위축으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데 연말

연시와 내년초 선거가 있어서 소비가 나아질 것을 대비해 입추가 그런대로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사육농가에서는 시기를 잘 선택해 입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기전망은 대체로 내년초의 의원선거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및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이 늘어 쇠고기맛의 저하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닭고기의 소비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어서 낙관적인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육계분과위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통지를 보내 협조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회 집행부에서도 각 분회의 회의날짜에 맞추어 참석해서 양계산업의 전망 및 협회업무를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어 분회의 활성화 및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기를 요청했다. 또 대군업자의 영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육계분과위원회와 친근감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그리고 다음 분과위원회는 연말을 피하고 좀 더 앞당겨 12월14일 오후 2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기로 결정했다.

도계위생 및 검사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어형선박사 초청 11월27일 대구, 11월29일 안양 -

11월21일과 23일에는 제주지역 및 전남지역 간담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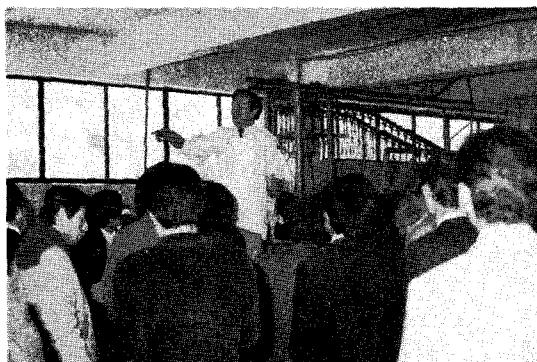
△ 닭고기 품질향상의 관심도가 높아 많은 참석자가 운집한 안양 세미나 (가축위생연구소)

본회는 86, 88의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닭고기의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계위생 처리 및 검사에 관한 세미나를 대구와 안양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11월29일(목) 도계장 경영자, 수의사, 학계

및 연구기관, 유통상인, 관계당국 인사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안양세미나는 먼저 오전 9시부터 효성식품에서 어형선박사의 설명으로 미국의 도계처리에 관한 실습이 진행되었다.

오후 1시부터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속개된 세미나에서 본회 황인옥전무는 「커다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모두



△도계장에서 미국의 도계처리 방법에 대한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가 노력하고 있는데, 닭고기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수입이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품질을 높임으로써 큰 타격을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동섭가축위생연구소장은 「오늘 미국 농무성의 어형선박사를 모시고 양계협회가 세미나를 개최한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 세미나가 도계위생문제 해결에 전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찬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은 「지금까지 한국은 도계유통 실시에 따른 많은 진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강의를 맡은 어형선박사는 미농무성 공직자로서 기술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모든 면에서 풍부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며, 앞으로 닭고기의 품질을 향상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위생연구소 남궁 선 계역과장은 「우리나라 도계검사제도의 역사가 짧고 실무교육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며, 아직 상품화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계장에서부터 사육자들이 질병의식을 높이고, 도계장에서는 자체검사원을 두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인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은 「현재 US-FGC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브로일러부문에 할

애하고 있으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해문제 등을 고려해 볼때 가장 적절한 것이 브로일러인데도 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후, 「행정부, 연구소, 단체, 생산자 간에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생산자가 그대로 따르는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이제는 생산자가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미농무성 식품안전국 수의감독관 어형선박사의 강의가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는 현재 근무중인 '골드키스트(Gold Kist : 계열주체 협동조합 조직체)'사의 소개에 앞서 「한국의 도계장을 둘러본 결과 대체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자나 수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고용인을 지도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 소비 홍보 확대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형선박사는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브로일러산업이 성장산업임이 분명한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각 분야 관계자들의 긴밀한 유대로 안정산업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어형선박사는 계속해서 미농무성 식품안전검사국의 조직을 간략히 소개한 후 슬라이드를 통하여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도계·처리·상표부착·저장·수송에 이르는 도계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골드키

스트'는 도계장 협동조합체로서 작년 순익이 3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도계작업라인에는 고졸 이상의 숙련된 검사원을 두고 있는데 4개월마다 능력검사를 하여 행정처분한다. 또 탈모후 병작시에는 물을 항상 충분히 흐르도록 해놓고 있고, 방혈이 안된 것은 무조건 버리며, 튜머가 한개일 때는 가위로 제거하여 사용하되 2개 이상이면 폐기처분한다고 한다.

한편 이에 앞서 11월27일(화) 오전 10시부터 수의사, 관계공무원, 도계장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구세미나는 대구축협회의실과 신미식품에서 같은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11월21일(수)에는 제주지역 양계인을 대상으로한 양계인간담회가 제주시 한일관에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어 23일(금)에는 광주지역 양계인간담회가 전남지부회의실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번 행사는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와 농수산부에서 후원하였는데, 정부당국, 연구기관, 생산자, 도계실무자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앞으로 닭고기의 품질향상에 새로운 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본회 방문



(Mr. Terry Evans)

지난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세계적인 양계전문지 「POULTRY INTERNATIONAL」 편집인 TERRY EVANS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양계산업에 대한 취재차 방문한 것인데, 본회와 미국사료곡물협회에서 취재 협조를 해준 바있다.



(사카이이다 박사)

지난 11월28일 일본 기후교육대학교 농학부 강사인 사카이이다박사가 본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양계업계 현황과 공동관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창옥(다나축산)사장과 본회 임덕성사무국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중계 및 부화인단합추진 소위원회 개최

- 12월26일 차기회의 개최키로 -

지난 11월28일 본회 회의실에서 부화인 단합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G.P.S 농장의 실무자와 농장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통계업무의 정확도를 위하여 분양실적보고를 누락없이 협회에 보고함으로써 P.S 농장의 입추조절을 할수 있는 자료를 삼을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보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은 세금, 등록수수료, 미등록중계장에 분양하는 경우 등 기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이므로 G.P.S 실무자들이 모여 분양수수만이 라도 정확하게 공표하므로써 물량조절에 다함께 노력하고자 결의하였다. 도태시기 결정 및 제값을 받기위한 노계판매 창구의 일원화 제의에서는 실시하는데 따른 제반 여러가지 문제점 및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차후회의시 토의하기로 하고 무기연기되었다.

이날 회의의 본주제인 12월 전국 부화인 대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 없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한채 다음 소위원회로 의안을 연기했으며, 다음 소위원회는 12월 26일로 결정하였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한결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국 부화인을 대표해서 부화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전국의 육용종계 노계의 가격과 병아리 시세업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11월 양계산업 기반조사요원 회의
- 초생추 출하량 등 업계동향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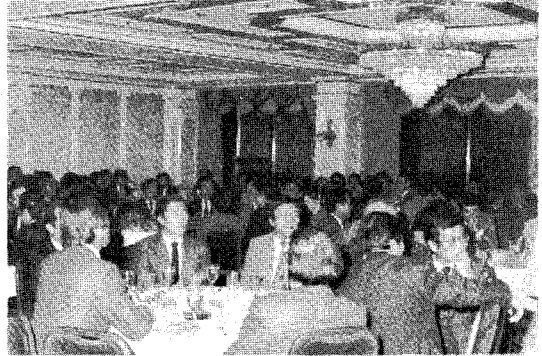
전국 각시도 지역의 초생추출하량과 가격, 업계동향 보고회의가 지난 11월30일 본회·회의실에서 황인옥전무 주재로 개최되었다.

11월회의에서는 초생추출하량과 가격동향, 육계물량 등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반적으로 초생추가격과 육계 가격의 강세를 보였고, 김장철인 12월에는 약간 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화장 실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11월 현재 부화기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본회에서는 안정된 양계산물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각 부화장에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월간양계 창간 15주년 기념회 성료
- 180여명 참석, 축산업계의 관심 집중시켜 -



월간양계 창간 15주년 기념회가 지난 12월 3일(월) 오후 7시 서울 영동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날 기념회에서 본회임원과 농수산부공무원, 관련업체 및 단체장, 본지편집위원, 월간 양계 집필진, 광고 스폰서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에서 본회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월간양계 창간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본지를 아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모든 양계인과 정부, 학계, 관련업체 인사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하는 한편 지난 15년을 거울삼아

2천년대의 비전제시를 위해 각종 정보수집, 가공, 전달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지설하축산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양계산업의 산업화과정에서 월간양계는 선도적인 사명을 다해왔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양계인의 번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한국가금학회 오세정부회장은 「지난 15년간 양계업계뿐만 아니라 불모지의 국내 축산업계를 명실공히 이끌어 온 월간양계는 선진 기술소개, 유통개선, 생산성향상, 소비증대, 양



△ 본지 창간 15주년 기념회 케이크커팅

제정책개발 등 참신한 지식전달의 매개체로 업계를 선도하고 봉사해 왔다」고 밝히고 월간양계의 번영이 곧 양계관련인의 번영과 지위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기념회에서는 월간양계에 최신 국내외양계에 관한 '연구논문초록'을 통해 가장 오랫동안 원고집필을 해온 한국축산학회와 보dana은 잡지편집에 자문을 아끼지 않은 송기홍 편집위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하고, 편집국 직원인 정홍섭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역대 축산국장이 4명이 참석하고, 농수산부 축산국 3과장, 관련 연구기관, 학계, 부화업계, 사료업계, 동물 약품업계 대표 및 실무자 18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양계인의 번영을 위한 전문지 월간양계는 지난 1969년 11월 당시 양계인의 단합된 의지로 출발하여, 84년 11월 통권 181호를 낼때까지 단 한번의 결간없이 책을 발간하여 양계업계를 선도하여 왔으며 양계인의 대변자 노릇을 해온 바 있다.

편집과장 새마을교육 입소

본회 남두회편집과장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시 소재 새마을교육연수원에 입소 제288차(제10차 사회단체 임직원반) 새마을연수교육을 받았다.

본 회 인 사



(이규성 검정소장)

본회사무국 이규성부장을 11월20일부로 총무부장겸 닭경제능력검정소장에 임명.

여류시각디자이너협 창립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문화원서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회장 이인자) 창립전이 '축산진흥'을 주제로 미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계속적인 계몽과 소비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양계, 양돈, 낙농, 유가공, 사료 등 축산 전분야를 주제로 대부분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준비작업을 서둘러 왔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여성이 해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진출의 기회가 적어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창작 활동을 통하여 실력을 연마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창립된 한국여류 시각디자이너협회는 현재 전국 14개대학 출신 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본회, USFGC 등 7개 축산단체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축산인과 디자이너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진밀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 광고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